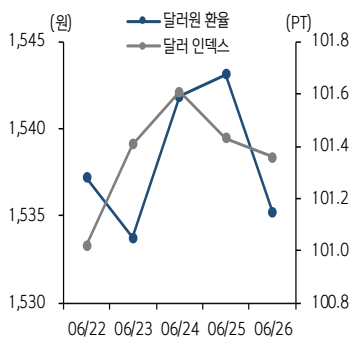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시의 벌크업

FX Talk & Insight : 금주 1,535~1,555원 전망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를 계기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을 향해 하락하고 시장 관심이 미국 연준의 매파적 행보,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뚜렷. 진정되는 듯 했던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매도세도 되살아나며 원화 약세에 일조.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지만, 호르무즈에서 선박이 발사체에 피격되면서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복해 있음을 방증. 다만,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외환시장도 부분적 되돌림 가능

외환시장



상대가 트럼프라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MOU를 계기로 중동 사태가 다소간의 소강 국면에 진입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시발 증시 호조와 매파적인 연준간의 대결로 시각을 좁히려는 모습이 다. 공교롭게도 시의 주도권을 여전히 미국이 움켜쥐고 있고, 성장에 대한 위험이 경감되며 연준이 물가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역설적으로 미달러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듯하다. 여기에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AI 모델에 대한 외부 접근을 차단하며 기술력을 독점화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 스페이스 X에 이어 오픈 AI와 엔스로픽 등 초대형 IPO가 올해 예정되어 있어 미국 기술 산업으로 글로벌 자금의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과거 어떠한 기술혁명보다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AI의 주도권 싸움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글로벌 금융시장 위상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AI는 서비스업과 광범위하게 결합되며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어 지난 1990년대 IT 혁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에 기여하며 소위 중립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가장 크고, AI 기술력이 가장 앞서는 미국의 자산가치 재평가와 이로 인한 자금유입으로 미 달러가 선호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 실제로 50~60%선에 머물렀던 미국의 GDP대비 시가총액이 지난 IT 혁명을 계기로 100%를 넘어섰고, 한 동안 정체되다가 AI 붐을 기반으로 현재 250% 내외까지 다시 한 단계 올라서고 있다.

물론 한국 역시 미국 AI 산업의 가파른 성장 수혜를 반도체 수출과 시가총액 급등을 통해 얻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의 54%가 AI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오픈 AI(32%)와 엔스로픽(34%)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승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기술산업 특성상 당연히 손익보다는 외형 신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자본 유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연관된 장비와 소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한국 반도체 수출이 순환적인 사이클 경로를 크게 벗어나는 이유 역시 AI 급성장과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열약해 한국이 AI의 자체 영토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미 달러는 미국 자산시장 스스로가 결정할 공산이 커졌다.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에서 위협적인 경쟁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ECB와 BOJ의 앞선 금리인상에도 미 달러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자체적인 정치 불안이 확산되거나 자산시장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보다 의미 있는 달러 약세가 가능해 보인다. 하반기에는 연준과 중간선거의 무게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은 시가 견인하는 기술주의 체력을 확인하려 할 것 같다. 다가오는 7월이면 국내외 테크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외형 신장과 수익 그리고 재정 여건 등을 보다 예민하게 바라볼 소지가 적지 않다. 이와 더불어 금주에 발표되는 한국의 6월 수출을 통해 반도체 성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 고용을 통해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여부를 타진할 듯하다.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535	1,555
달러엔	161.0	162.8
유로달러	1.129	1.145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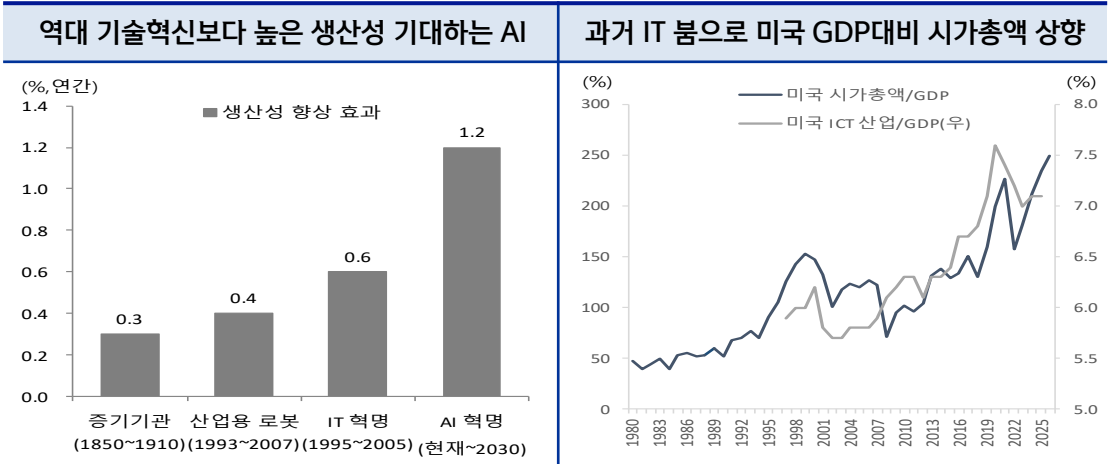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시의 벌크업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역사적으로 성장의 흐름을 바꾼 기술혁신 중 AI는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기존 기술과 융합 및 서비스업의 확장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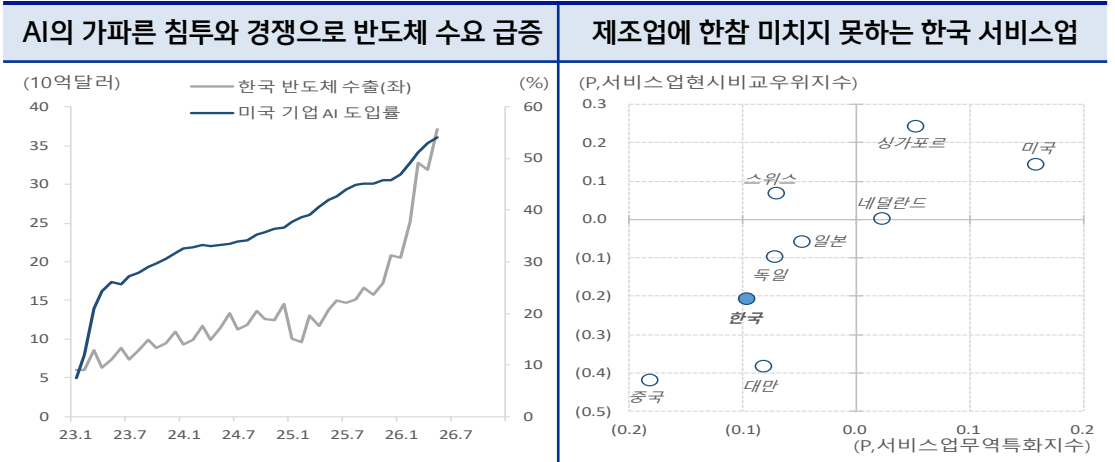
기술 혁신의 주도권 확보시 실물 경제 향상과 더불어 자산시장 재평가로 작용. 미국 역시 IT붐을 기점으로 GDP대비 시가총액 100% 상회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AI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아래 기업의 도입률 50% 넘으며 AI 일상화. AI 관련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 폭증하며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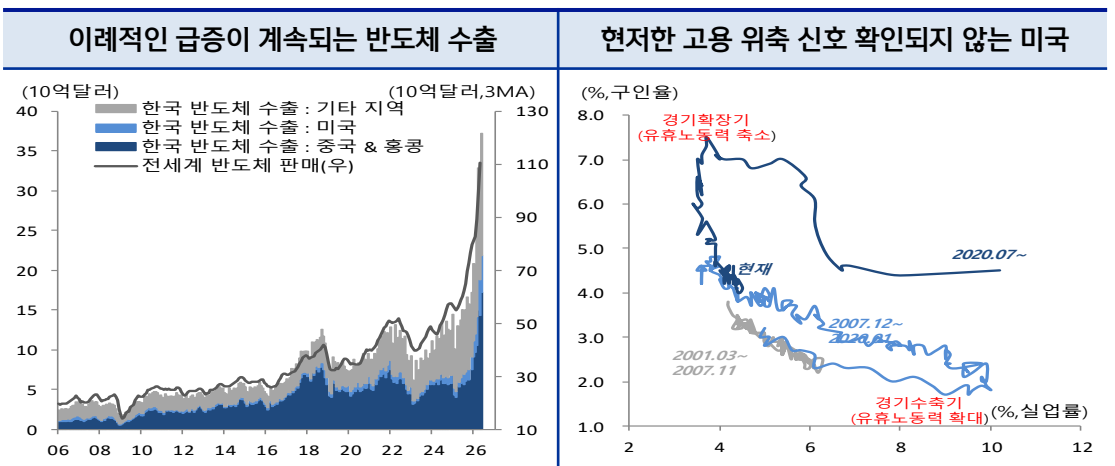
반도체 강국으로 한국의 제조업 위상 확인. 하지만 AI 효과 및 주도권은 서비스업에 따라 달라져. 낮은 경쟁력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 소지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6월 수출은 반도체를 앞세워 5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다만 대규모 무역흑자가 외환 시장에 출회될 지는 미지수

전월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고용지표 통해 연준 금리인상 시점 가능하려 할 듯. 단기간내 고용 냉각 가능성 낮아 연준 금리인상 지지할 가능성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시의 벌크업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6-30-2026 8:00	SK	광공업생산 YoY	May	3.60%	1.50%	82
6-30-2026 8:30	JN	실업률	May	2.50%	2.50%	97
6-30-2026 10:30	CH	제조업 PMI	Jun	50.1	50	94
6-30-2026 10:30	CH	비제조업 PMI	Jun	49.9	50.1	75
6-30-2026 16:55	GE	실업자 변동 (단위:천)	Jun	5.0k	-12.0k	83
6-30-2026 21:00	GE	CPI (전년대비)	Jun P	2.60%	2.60%	92
6-30-2026 22:00	US	FHFA 주택가격지수 MoM	Apr	0.20%	0.10%	71
6-30-2026 23:00	US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Jun	94.6	93.1	92
6-30-2026 23:00	US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May	7288k	7618k	62
7-01-2026 8:50	JN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2Q	16	17	88
7-01-2026 9:00	SK	수출 YoY	Jun	60.70%	53.20%	92
7-01-2026 9:00	SK	무역수지	Jun	\$33000m	\$26949m	63
7-01-2026 9:00	SK	수입 YoY	Jun	24.50%	20.80%	71
7-01-2026 9:30	SK	S&P 글로벌 한국 PMI 제조업	Jun	--	54.8	90
7-01-2026 21:15	US	ADP취업자 변동	Jun	119k	122k	93
7-01-2026 23:00	US	ISM 제조업지수	Jun	53.9	54	95
7-02-2026 8:00	SK	CPI (전년대비)	Jun	3.20%	3.10%	95
7-02-2026 10:30	AU	무역수지	May	A\$2175m	A\$1791m	84
7-02-2026 18:00	EC	실업률	May	6.30%	6.30%	69
7-02-2026 21:30	US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Jun	115k	172k	99
7-02-2026 21:30	US	실업률	Jun	4.30%	4.30%	89
7-02-2026 23:00	US	제조업수주	May	-2.00%	4.80%	86
7-03-2026 6:00	SK	외환보유액	Jun	--	\$426.99b	58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547.3	227.4
고가	1,549.8	227.9
저가	1,526.0	224.8
종가 ¹⁾	1,532.0	225.3
전일비	-10.7	-1.3
평균환율	1,544.2	227.7
NDF(1M)	1,535.8	
거래량	190(억불)	377(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535.20	-6.65
JPY/KRW	948.74	-5.06
EUR/KRW	1,748.21	-4.19
GBP/KRW	2,025.58	-9.73
AUD/KRW	1,058.14	-8.08
CAD/KRW	1,081.32	-5.33
USD/JPY	161.74	-0.05
EUR/USD	1.1384	0.0014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 ²⁾	전일비
1Y	3.455	-0.033	2.980	-0.08
2Y	3.727	-0.059	3.175	-0.07
3Y	3.820	-0.057	3.240	-0.05
4Y	3.867	-0.051	3.290	-0.03
5Y	3.898	-0.051	3.360	-0.03
7Y	3.940	-0.040	3.450	-0.01
10Y	3.978	-0.034	3.350	-0.02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92	0.00
통안 1년	2.18	+0.01
통안 2년	3.65	-0.02
국고채 3년	3.72	-0.05
국고채 5년	3.94	-0.06
국고채 10년	4.12	-0.04
국고채선물(3년)	103.29	0.00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60	5.00	3.21%
3M	-280	15.00	3.00%
6M	-680	10.00	3.00%
1Y	-1,500	0.00	3.02%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 ³⁾	전일비
1Y	3.91	-0.050	3.97	-0.043
2Y	4.09	-0.053	3.95	-0.057
3Y	4.09	-0.054	3.88	-0.059
5Y	4.13	-0.047	3.84	-0.054
10Y	4.37	-0.024	3.96	-0.027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8,411.21	-519.09	-5.81%
미국 DOW	51,876.11	-44.51	-0.09%
중국 상해종합	4,027.27	-93.02	-2.26%
일본 NIKKEI 225	69,360.88	-3,005.46	-4.15%
영국 FTSE 100	10,508.02	-21.87	-0.21%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69.23	-2.69
금 (선물)	4,096.30	+65.80
3M TERM SOFR	3.73	-0.01
3M EURIBOR	2.29	-0.00
KOR 5Y CDS	22.75	+0.68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